

90년대 실천적 문예운동의 가능성

세계노동절 기념공연 '앞으로...'를 보고

지난 4월 28일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세계 노동절 1백 1주년 기념공연 '앞으로! 앞으로!'가 노동자 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련연), 서울 노동자 문화예술 단체협의회(이하 서노협), 학생문화선전투위의 주최로 열렸다.

공연장을 뒤편에 에워싼 5천여 시민(대부분 노동자), 학생들은 자발의 비인간적인 공포에 맞서, 특히나 그날 자행된 현대중공업의 공권력 투입에 분노하는 관중의 함성이 휘감겨 공연장은 투쟁의 화염이 꽃피듯한 집회의 분위기를 아니 고도로 발달한 집회장을 형성했다.

공연장은 70년대 이래로 부단히 지속되어, 80년대 후반 비약적으로 발전한 '민중적 리얼리즘'의 견지에 선 전문 연행패 활동의 총화로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작업을 수행해나갔다. 90년대를 여는 문예 운동의 힘찬 가능성을 그 선제적인 의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구성에 있어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연장에는 백기완 선생을 비롯한 인사와 전노협 단위장의 육종원지

소개들이 끝나면서 1부 노래공연이 시작된다. 대형 무대를 꼭 매운 노래패들의 압도적 등장으로

◇노래와 춤사위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사실적 묘사로 표현의 추상성과 운동의 관념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부문 연행패들의 효과적 총화 이뤄

87년 투쟁과정의 노래와 노동자 계급의 서정요가 이어져 노동자의 삶의 진실성과 결연함을 확인한다. 이후 극중 상황에 대한 각성과 과학적 이해를 통한 진군의 결단을 그린 노래, 폭압속에 투쟁의 결의를 새로운 자세로 확인하여 전노협 강화로 수렴해법을 단결없이 부분으로 정리해 '타울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 정연하게 이끌어 냈으며 전노협 참가 전노협 투쟁가 등의 힘찬 노래를 정리했다. 2부에서는 주제곡 '앞으로! ...'가 노래와 슬라이드, 풍물과 춤을 조화시키는 형태의 총체극이었다. 1880년대의 역사적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투쟁 모습이 영상처리와 인터넷 서브와 장중한 속에서 서사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87년 6월 항쟁과 7, 8월 투쟁을 통하여 전진 성장한 노동계급의 역사적 진출, 올해 1월 22일 전노협 결성을 점점으로 하는 모습이 대규모 합창과 시낭송으로 구성되며 연기와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구체적 사실 즉 부동산 투기, 물가인상, 전세값 폭등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연기자 간의 결연한

아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판으로 다시 탄압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의 불꽃이 춤패의 춤사위로 추어진다. 작품의 절정에서는 전민중의 연대로 투쟁의 결의를 세우고 전진하는 민중의 모습을 힘찬 선과 함께 관중들은 일어나 단결투쟁가들을 같이 불러 집회장으로 대로를 점열함과 동시에 정리된다.

전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당면 정세에 적합한 내용의 구성과 안정적으로 노동절의 의의와 현실을 전체 남한 계급투쟁의 연정선상에서 재조명해내는 사실적 묘사로 인해 표현의 추상성과 관념적 민중지향성을 방지하여 부단히 노력 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전체 극 구조의 극적효과를 더할 수 있는 전형의 제시로 인해 긴박하게 그 변화의 속도를 더해가는 정세, 즉 현종과 KBS투쟁의 노동자의 투쟁이 작품 내용의 절실함에 상충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현실성을 전제로 파악된 소재가 현실 보다 더 현실의 본질을 접근되도록 극적 재구성의 노력이라고 본다.

아울러 노동절을 맞아 그동안 예산의 부족, 고르지 못한 조건 속에서 창작적 역량을 강화, 조직상의 문제등의 과제를 안고 진정한 민중의 삶의 무기로 바로서려는 문화예술운동의 굳건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재 신
(임학 4)



◇가야금에 매일 30여명이 수강하며, 그중 대학생이 대부분이다

무료 국악 강습실을 찾아서

서울의 끝 사당역에서 국립국악원을 향한 버스길은 즐비한 아파트촌과 건설공사로 분주했다.

아직 미개발된 주위때문인지 더욱 커보이는 국립국악원, 신분 확인을 잊지않는 수위자씨에게서 아지는 높은 국악원의 문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곳의 1층, 신발을 벗고 들어간 작은방에서 매일 7시부터 8시까지 국악무용강습이 열리고 있

다. 단소를 켜는 여학생의 손, 강사앞에서 살롱의 기본동작을 익히는 젊은 주부의 발꿈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매일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 하루 평균 약 1백2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가야금과 단소 부르는 주로 대학생과 일반인이 대부분이고, 무용부분은 의외로 주부들이 대다수였다. 고전 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가선용에도 활용하고 있는듯 했다.

강의내용은 1개월을 단위로 하여 주로 기본적인 자세와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주가된다. 때문에 수강생 중에는 가야금같은 악기는 먼저 배우고, 다음달에는 무용강습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초청 공연...소련 '말리극장'의 '벚꽃동산'

체홉탄생 1백30주년을 기념하는 소련국립아카데미 말리극장의 초청공연 '벚꽃동산'이 17일 호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벚꽃동산'은 안톤 체홉의 작품을 이고리 이리니스카가 연출한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작으로 벚꽃동산이 상징하는 부와 권위를 쫓는 인간의 등장과 함께 모든 삶의 요소와 허영과 사치가 가져오는 인간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사실주의 연극의 정통성을 그



담당자 권정선씨에 의하면 이 무료강습은 1961년부터 국악원 자체내에서 실시해오고 있는것으로, 아직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만 계속 수강하게 되는것이 난점이라고 한다. 강습실을 나오자 2층 입구의 공중무선 '선유락'과 '포구락'의 실연장면을 묘사한 인형에서 국악원만의 맛이나는 듯했다. 국악원측은 이용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각적 효과로 설치했다고 한다.

우리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활속에서 절실한 때이다. (경)

대토 계승하고 있는 세계적인 극단 '말리극장'의 초청공연은 극단 '자유'의 주축으로 이뤄졌으며, 오는 17일 막이 올라 21일까지 공연될 예정이다. 공연시간은 평일 저녁 7시 30분에 토·일요일은 4시, 7시 30분 두차례에 걸쳐 상연된다.

이번 공연은 '말리극장'측이 기획한 아시아인 해외공연의 첫선으로서, 리얼리즘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구권 리얼리즘 연극의 정수를 감상함과 아울러, 현재 우리 연극의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전화 751-5548)

예술형상이란 무엇인가

예술활동이란 하나의 가치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 세계란 구체적이며 감각적·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실로 생동적인 형상으로서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다.

예술가가 단순한 기술적 재능에 의존하여 물품제작을 행하는 직인과 구별되는 점은, 예술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사물과 인간의 모습을 새로이 보게끔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데 있다.

예술형상은 예술가의 정서와 사상, 그리고 경험과 탐구가 함께 작용하여 창출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명백하고 자명하지 못했던 세계의 발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상의 발견과 창조는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의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상력은 예술적 재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이것으로 인해 형상은 거기에 반영된 실재의 대보다도 더욱 풍부하고 심오하며 강렬한 것이 된다.

일찍이 예술적 형상이 머리속에 떠오르고 또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객체화 시키지 못하면 예술이라 할 수 없다. 재료와 도구를 갖추고 기술적인 숙련과 재능이 발휘됨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상상속의 형상이 예술작품으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예술작품이란 물질성과 정신성, 기교와 상상력을 통일시키는 독자적인 질서를 가진 세계라고 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빛은 그 자체

장한 표현(expression)이다. 그런데 작가의 주관적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이 미나 기술과의 관련을 잃게 되는 위험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미켈 뉘프렌느(M. Dufrenne)는 객관적인 미메시스와 주관적인 엑스프레시옹의 장단점을 선별하여 절충한 '객관적 표현'이 예술의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예술이란 객관적 존재자의 가능성을 짚어내 완성시키는 것이지, 단순한 모방도 또 단순한 자기내면의 표백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작가가 대상의 어떤점에 주목했으며 대상의 가능성을 어떻게 끌어내었는가와 같은 생성과정의 문제이다.

요제프 간트너(J. Gantner)는 이 점과 관련하여 작품의 선형상(先形象) 즉 Prafiguration에 특히 주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일찍이, 콘라드 파들러(K. Fiedler)도 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예술의 본질은 예술가의 활동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형태의 창조에 있다고 하였다. 예술은 예술의식에 의해 또 예술의식을 위해 최초로 세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속에 그려진 색과 형의 세계는 전적으로 새로운 형상이며, 세계의 단편적인 가상도 모사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술작품을 본다고 할 때

◇미학입문을 위한 시리즈 (6)

인식과 환경사이의 독자적 질서

사회·역사적 상황에서 규정돼 피들러... 새로운 현실의 창조로 이해

아름다운 동시에 사물의 형상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명확한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예술형상을 제작하는 이념으로서 미메시스(mimesis) 즉, 모방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본 형상을 충실하게 물적현상으로서 재현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호메로스와 같은 탁월한 시인은 보통사람으로서의 들을 수 없는 신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인간의 말로써 모방적으로 재현한다고 말하였다.

최고의 예술이란 이처럼 신이 체험한 아름다운 것을 인간에게 이해가능한 도구를 사용해서 모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많은 예술가들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세계를 재차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플라톤은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세계가, 비록 이데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것을 재현한다는 것 역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메시스는 마침내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리얼리즘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사인이 일반화 될 때, 대상의 모방적 재현은 그 의의가 감소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외부 대상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내면을 형상으로 조형하려는 태도가 생겨난다.

내적인 세계의 자기제시로서 자신으로부터 꺼내는 것처럼 하여 그 감정을 물질세계에 투영하는 것이, 예술창작의 새로운 이념으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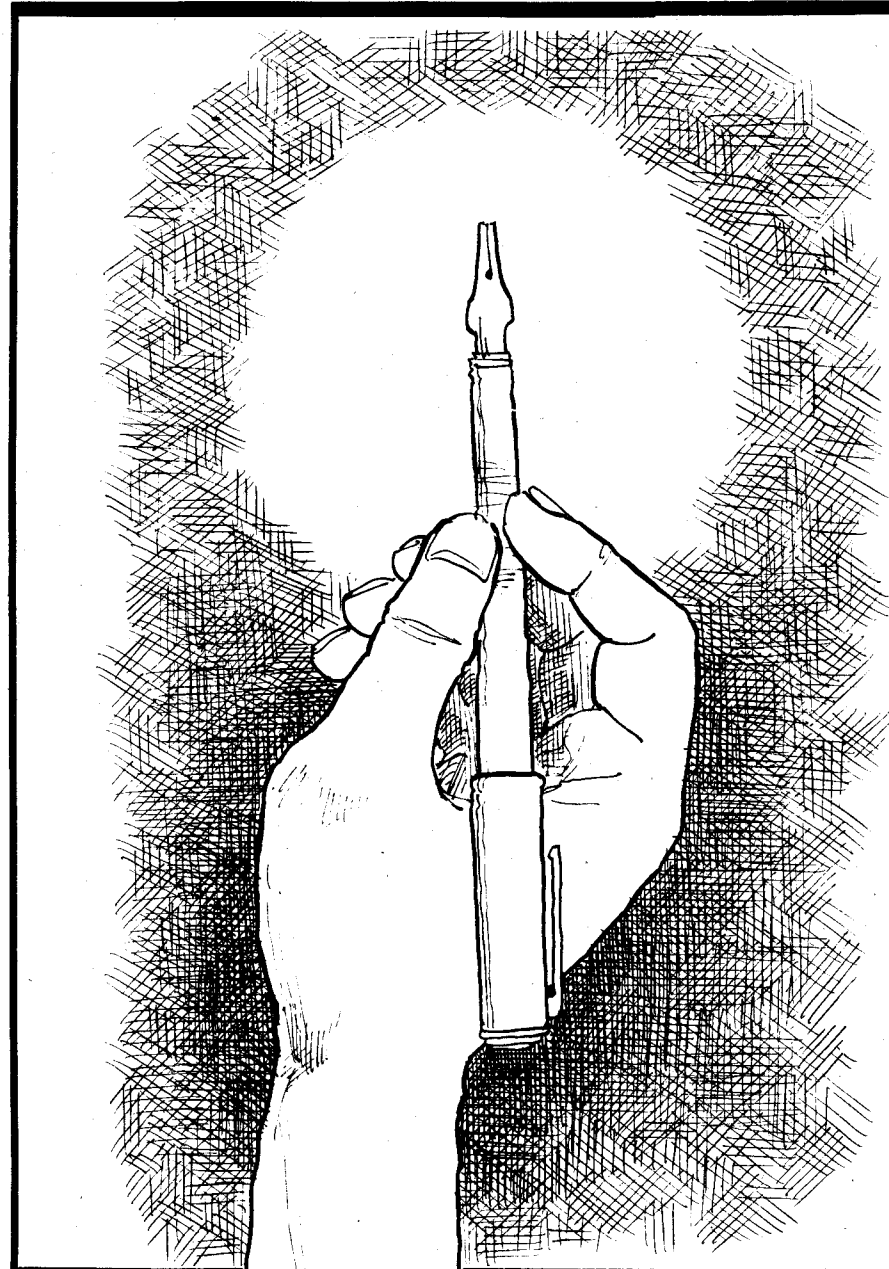
그 작품의 의미를 작품의 배후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작품에서 그 아름다운만을 분리할 수 없듯이 어떤 의미만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 그 작품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자연이며, 그것 자체가 원전(text)인 것이다. 이 새로운 색과 형의 세계 즉 예술형상은, 원상으로서의 이미지에 소급할 수도 없으며 또 자연 그 자체와의 관계에 속박되는 것도 아니다.

예술형상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무로부터 유가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는 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형상이 축적되어 있다. 새로운 활동은 원초부터의 전통과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명 새로운 것을 산출한다 할지라도, 자기 교육의 현에 의했거나 보다는 축적되어 온 경험이라는 유산의 도움을 받게 마련이다. 예술가는 이러한 형상세계에 정통함으로써 형상언어에 의한 조형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술형상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지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가운데, 고유한 해답으로서 제시해 온 인간의 세계인식의 도류현상이다. 형상은 그 자체 고유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라이클이나 뵐플링과 같은 미술사학자는 예술의 역사를 형상의 역사로 파악하여, 항상 세계의 독자적인 논리를 찾으려 하였다.

민 주 식
(경남대학교·미학)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

아직도 죽음의 의문이 밝혀지지 않은
대학언론인 이철규열사를 기억하십시오

대학언론탄압이 본격화된 문교부의 89년 5·6조치 발표이후, 잇단 편집장과 필자의 구속, 조선대학교지 편집장 이철규열사의 의문의 죽음, 편집자들과 예산권을 둘러싼 대학언론 무력화음모...

하지만 이러한 탄압을 겪으며 오히려 우리 대학신문은 더욱 본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광고계재를 위한 광고질서회복 운동, 학우들의 건전한 동참을 이끌어 낸 매체혁신사업...

이렇게 우리 대학신문은 그 뿌리가 양심과 정의와 용기를 지닌 대학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에 자리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대학신문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지금의 탄압에 맞설것임을 학우여러분께 약속합니다.

5월6일부터 5월11일까지는 대학언론 탄압 분쇄와 고 이철규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학언론 자주화 기간'입니다.

대학언론 자주화 기간을 맞아 여러분과 이련일을 함께 하려 합니다

□5월5일 9시 경희대학교에서 문교부의 대학언론 탄압 조치인 '5·6조치' 1주년에 즈음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습니다.

□각 신문사 별로 학우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공개편집회의, 플래카드 함께 만들기 등의 행사를 준비합니다.

□「백지대자보」등을 캠퍼스에 부착, 대학언론자주화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외 각 신문사마다 별도로 독자와 만나는 방법을 선택, 각자별 실정에 맞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